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0.(화) 13:30 (2026. 11. 11.(수) 조간)

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지평, 국내외 경험에서 해법을 찾다

- 11. 10.(화) 2026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-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와 **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원장 정승국)**은 11월 10일(화),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B에서 **『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』(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6)을 개최**했다.

이번 국제포럼은 **「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가: 성년 사회적기업이 마주할 새로운 지평」**을 주제로, 국내외 사회적기업이 돌봄과 주거, 에너지와 일자리 등 **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잇고 자원을 모아 지역의 일상을 지탱해 온 경험**을 나누고, **앞으로 나아갈 방향**을 **함께 모색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포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아말 슈브로(Amal Chevreau) 사회적경제·혁신팀장의 영상 **기조강연**을 시작으로, 주민의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사례를 살펴보는 **첫 번째 세션**과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해 지역문제를 풀어 온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**두 번째 세션**으로 진행됐다.

OECD 아말 슈브로 팀장은 **기조강연**에서 오늘날 각국이 마주한 질문은 경제를 어떻게 키울지가 아니라 **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회복력을 갖출지**이며, **사회연대경제가 그 해법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**고 강조했다. 특히, 고령화와 인구 감소, 지역 소멸 등에 직면한 **한국**에서 **사회연대경제가 그 과제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**이라고 덧붙였다.

첫 번째 세션은 「사람을 잇다, 지역을 살리다」를 주제로 주민이 함께 지역 의료와 돌봄 모델을 만들어가는 **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**,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함께 풀어 온 **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**, 지역 내 자원과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**(사)경북시민재단**,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끈 **구양리 마을회**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끈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다.

두 번째 세션에서는 「자원을 잇다, 지평을 넓히다」를 주제로,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한 청년 공공주택을 운영하는 **대만의 나인플로어 코리빙**, 삼킴장애 어르신을 위한 포용적 식사 환경을 만들어 온 **홍콩의 더 프로젝트 퓨처러스**, 대학생과 노인이 함께 이웃으로 사는 세대통합형 주거시설을 만든 **네덜란드의 후마니타스 데벤테르**, 공공기관과 함께 철도 굿즈 시장을 개척한 **한국의 주식회사 코이로가** 공공과 민간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난관, 이를 넘어서는 과정을 나누었다.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"**사회적기업**은 **의료와 돌봄 등 삶의 필수 영역에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며,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성장**하고 있다"라며, "**정부도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,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**"라고 밝혔다.

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"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후 만 19년을 맞은 사회적기업이 **제도의 나이로 보면 이제 성년의 문턱에 선 셈**"이라며, "이번 포럼에서는 화려한 성공담보다 **사회적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 온 과정**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"라고 말했다.

붙임 1. 2026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요
2. 2026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발제 사례
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	책임자	과 장	김부경 (044-202-7425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은 (044-202-7424)
	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략사업실	책임자	실 장	안수진 (031-697-7709)
		담당자	과 장	김다솜 (031-697-779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2026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요

□ (일시) ’26. 11. 10.(화), 13:30~18:00

□ (장소)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르웨스트홀 B(4층)
*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

□ (주최·주관) 고용노동부·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□ (주요내용)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및 공공·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필수 인프라로 성장해가는 국내·외 사례 공유 및 역할 논의

□ (참석자) 진흥원장, 국내·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, 정부 관계자, 학계, 전문가, 일반 국민 등 약 300명

시간		내용
13:30~13:40	10′	**< 개회식 >** - 개회사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- 축사: **고용노동부 장관(영상축사)**, 시멜 에심(ILO 협동조합·사회연대경제 팀장, 영상축사)
13:40~13:55	15′	**[기조강연]** **- 주제: “공동체가 인프라가 될 때: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”** **- 연사: 아말 슈브로**(Amal Chevreau, OECD 사회적경제혁신팀장, 영상강연)
[세션 1] 사람을 잇다, 지역을 살리다		
13:55~14:55	60′	**[발표] 우리 지역의 관계 인프라 구축 과정, 현재, 그리고 미래상** - 사례1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(의료돌봄) - 사례2: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(장애지원) - 사례3: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(에너지) - 사례4: 경북시민재단(지역소멸)
14:55~15:40	45′	**[종합토론] 좌장: 유한나 (한신대학교 교수)** - 패널1: 문현주 (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경영부장) - 패널2: 임신화 (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) - 패널3: 전주영 (구양리 마을회 이장) - 패널4: 우장한 ((사)경북시민재단 상임이사)
15:40~15:55	15′	<휴식시간>
[세션 2] 자원을 잇다, 지평을 넓히다		
15:55~16:55	60′	**[발표] 공공·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사회적 필요는 어떻게 결합되는가** - 사례1: 9floor (대만, 공공자산 활용, 주거) - 사례2: The Project Futurus (홍콩, 공공·민간 협력, 노인돌봄) - 사례3: 후마니타스 데벤테르 (네덜란드, 시민참여, 청년주거·노인돌봄) - 사례4: 주식회사 코이로 (한국, 공공기관 협업, 지역소상공인)
16:55~17:40	45′	**[종합토론] 좌장: 장희수 (CAPS 디렉터)** - 패널1: 신룽 판 (9floor, 대만) - 패널2: 퀴니 만 (The Project Futurus, 홍콩) - 패널3: 헤아 세이프케스 (후마니타스 데벤테르, 네덜란드) - 패널4: 홍찬욱 (주식회사 코이로, 한국)
17:40~18:00	20′	폐회식

붙임 2 **2026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발제 사례**

구분	연사	주요 내용
기조 연설	아말 슈브로	**<주제> 공동체가 인프라가 될 때: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** • 세계 각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사례를 바탕으로,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되는 가능성 소개
세션1	문현주	**<주제> 주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안심하고 나이들 수 있는 마을** • 출자자·이용자·돌봄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주민이 관계 기반 인프라의 핵심 동력 • 동네·관심사별 안심 관계망, 돌봄을 주고받는 순환 구조 등 최근의 시도 소개
	임신화	**<주제> 돌봄의 대상에서 지역의 주체로: 발달장애인 가족이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드는 관계의 인프라** •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과제로 바라본 경험 • 성과보다 함께하게 된 이유와 현장의 어려움·한계, 지금의 고민을 공유
	전주영	**<주제> 햇빛이 마을의 살림이 되다: 주민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에너지와 소득** • 태양광 발전이 가져온 마을의 변화 • 주민이 주인인 마을 발전소의 의미와 미래
	우장한	**<주제> 만만하고 안전한 삶의 경로 만들기 : 사회적기업 (사)경북시민재단의 실험** • 제한된 자원, 청년 유출 등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이어온 과정 • 부처·부서의 칸막이를 넘어 지역의 돈과 일과 사람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해 온 경험
세션2	신룽 판	**<주제> 집은 빌려도 삶은 빌릴 수 없다: 타이베이 코리빙 10년의 기록, 임대아파트에서 공공주택으로, 그리고 국경 너머로** • 대학원생 실험에서 시작해 대만 최초 코리빙 운영사로 성장한 과정 • 타이베이·신타이베이시 사회주택 내 세대통합형 코리빙 운영, 유휴 공공자산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꾼 사례
	퀴니 만	**<주제> 가치 있는 임팩트, 모두를 위한 공동체** • 삼킴장애 인식 개선 교육(Captain Softmeal)에서 출발해 포용적 다이닝 플랫폼으로 발전한 과정 • 레스토랑·의료 전문가·NGO·기업·재단과 협력해 케어푸드, 역량 강화, 지역 접근성 사업으로 확장
	헤아 세이프케스	**<주제> 미래는 공동체다: 정말 중요한 것에 돈이 흐르게 하려면** • 대학생이 어르신과 함께 살며 일상을 나누는 세대통합 모델 • 따로 설계된 의료·청년·주거 제도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만드는 과제
	홍찬욱	**<주제> 함께하는 것보다, 함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** •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·지역 소공인이 함께 만든 철도 굿즈 사례 • 공공기관이 구매자를 넘어 상품 개발·판로의 파트너로 참여한 사례 • 제품의 사회적가치를 측정·공유하는 SPP(Social Product Passport) 구상